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메시지 **4**

축복

성경: 창 47:7, 10, 48:9, 14–16, 20, 히 5:6, 7:7, 11:21, 민 6:22–27, 고후 13:14

Ⅰ.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는 이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축복은 생명의 넘쳐흐름이다.

A.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자신이 체험한 삼일 하나님을 말했다 — 창 48:9, 15–16.

1.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2. 야곱을 '오늘까지 일생 동안' 목양하신 하나님은 그 영이시다.
3. 야곱을 온갖 악한 일에서 구속하신 천사는 아들이시다.

B. 야곱은 그의 운명과 존재가 전적으로, 목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으로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Ⅱ. 축복의 의미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생명의 성숙을 통하여 넘쳐흐르시는 것이다.

A.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통로 없이는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려 보내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침투된 사람이다 — 빌 1:23–25.

B. 생명의 성숙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넘쳐흐름을 갖게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 영한 동번 찬송가 910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55장).

Ⅲ. 영적 체험에 따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인격이다.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방면, 곧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온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성도인 야곱은 요셉을 통해 다스렸다 — 창 41:39–44, 히 6:1상, 갈 6:8, 5:22–23.

A. 요셉으로 예표되는 다스리는 방면은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이다 — 갈 4:19, 롬 5:17.

B.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생명이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다스리는 권세인 권위가 있다 — 창 39:2–5, 21–23.

Ⅳ.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다.

A.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하여 첫 번째로 한 일은 파라오를 축복한 것이었다(창 47:7, 10). 히브리서 7장 7절에 따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이 파라오보다 더 윗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B.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흘러야 한다. 야곱의 성숙한 생명은 축복으로 가득했다. 그는 파라오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고(창 48:8–20),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했다(49:1–28).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그러한 축복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운명과 관련된 예언이었다.

Ⅴ. 축복의 원칙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 히 7:7.

A.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의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윗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이다.

B. 비록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 — 마 11:11.

C.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이다.

D.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여하고 누린 바로 그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축복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린다면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갖게 된다.

Ⅵ. 성경에서 축복의 첫 번째 사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다(창 14:18-20).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히 5:6).

A. 축복은 하나님의 넘쳐흐름이고, 이러한 넘쳐흐름은 제사장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계 1:6, 벧전 2:5, 9), 곧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B.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C.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없앤다. 제사장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끈다 — 비교 출 28:9-12, 15-21.

D. 우리가 제사장에게서 축복을 받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제사장이 우리를 축복한 후에는 이러한 거리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 함께 참여한다.

Ⅶ.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주는 축복의 본을 본다. 이 축복은 구약의 축복이나 신약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다. 이 축복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A.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관련된다 — 민 6:24.

1.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비교 엡 1:3). 아버지는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갖 방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신다(비교 요 17:11, 15, 벧전 1:5).
2. 주님은 아버지께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셨다(요 17:11). 이것은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셨다(요 17:15).
3. 우리는 절대적으로 삼일 하나님의 분배 안에 지켜지고 완전히 악한 자 밖에 있게 되는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큰 축복인가!

B.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아들과 관련된다 — 민 6:25.

1. 주 예수님께서 곧 태어나실 시기에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사가랴는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예언하였다. '돋는 해'는 신성한 삼일성 중에서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

님의 육체 되심이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 마 4:16, 요 8:12.

2. 민수기 6장 25절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임재를 상징한다. 우리를 비추시는 얼굴을 가지신 아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이시다 — 벧후 1:16–18, 마 17:1–2.
3. 민수기 6장 25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요점이 함께 더해질 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17절과 일치한다.
4. 하나님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임재의 비춤이었으며, 이러한 비춤과 함께 은혜가 있었다.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 고후 13:14.

C.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그 영과 관련된다 — 민 6:26.

1. 얼굴은 그 사람의 임재를 의미하고, 표정은 그 사람의 표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확증하고, 보증하고, 약속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 오셨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표정으로 오신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그분의 표정은 어두워질 것이고(엡 4:30),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증하고 약속하며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Ⅷ. 사도 바울의 축복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볼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A. 사도 바울의 축복에서 삼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사람들에게 오신다.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이끌었다.

B.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한 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이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와 교통으로 사람들 안으로 이끌어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C.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세 단계이다. 사랑은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는 표현된 사랑이며, 교통은 우리 안에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D.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미덕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E.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신학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고 놀라운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한 축복이 가리키듯이, 선택되고 구속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Ⅸ. 야곱의 빼앗는 손은 결국 축복하는 손이 되었다 — 창 25:26, 47:7, 10, 48:14–16, 히 11:21.

A.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조차도 빼앗기 시작한 것을 보지만, 47장과 48장에서는 이 빼앗는 두 손이 축복하는 손이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한 것을 본다.

B. 빼앗는 사람,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 그 당시에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다. 그는 파라오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었다. 그는 생명의 길에 의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C.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X. 창세기 49장 당시에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에 관하여 축복하며 예언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사람, 곧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조성되고 침투된, 심지어 하나님으로 재구성된 사람이었다.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가 표현한 의견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견이었다 — 비교 고전 7:10, 12, 25, 40.

A. 축복하며 예언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B. 축복하며 예언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는 관련된 각 사람의 실지 상태를 알아야 한다.

C. 축복하며 예언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해야 한다.

D. 축복하며 예언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강하고 활발한 영을 가져야 한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